

(주소) 12700 /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812 (전화) 031-732-1684 (팩스) 031-732-0131

배포일: 2025.12.09. 보도일: 2025.12.10.	쪽수	사진	누리집	자료 문의
남한산성에서 배운 살아있는 역사, <歷史(역사), 느낌표!> 성료	2	4	gjicp.ggcf.kr	부 서: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남한산성역사문화관팀 담 당: 최지원 취 재: 백주희 전 화: 031-732-1684

## 남한산성에서 배운 살아있는 역사 <歷史(역사), 느낌표!> 성료 - 걷고 보고 체험하며 만난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역사-

- ▶ 남한산성역사문화관, 성인 인문교양 프로그램 <歷史(역사), 느낌표!> 성공적 마무리
- ▶ 11월 13일부터 4주간 이어진 걷고 맛보고 즐기며 배우는 남한산성 세계유산 여행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은 지난 12월 4일,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문교양 프로그램 <歷史(역사), 느낌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11월 13일부터 4주간 매주 목요일에 운영되었으며, 모집 단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강의 형식을 넘어 참여자들이 직접 걷고 보고 체험하며 남한산성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현장 중심 인문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들은 전문가와 함께 성곽을 거닐고, 전통 무예를 관람하고, 직접 술을 빚어보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4회차에 걸쳐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먼저, 최재현 이코모스(ICOMOS) 한국위원회 위원장의 강연과 함께 성곽을 직접 답사하며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웅장함을 살펴보았다. 이어 오덕만 전(前) 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 회장과 송렬전·수어장대 등 주요 유적지를 탐방하고, 매에게 먹이를 주는 '매줄밥부르기' 체험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3회차에서는 '큰별쌤'으로 유명한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가 병자호란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으며, 경기도 무형유산인 '경기검무' 공연이 더해져 참여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마지막 회차에는 남한산성 소주 전수자인 강환구 명인과 함께 전통주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배우고 직접 막걸리를 만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즐거움을 더했다.

다.

남한산성역사문화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남한산성을 한층 가깝고 친근하게 느끼고,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참여자들의 반응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세계유산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은 이번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붙임. 사진자료]



〈歷史, 느낌표!〉 현장사진